地名の変形の



주식시황 김윤서

2184-2285 / yskim113@ktb.co.kr

10 Jun. 201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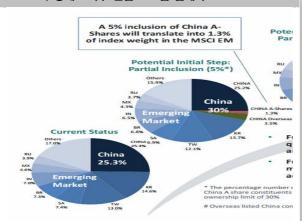
상해A의 MSCI EM 편입보류와 한국증시 영향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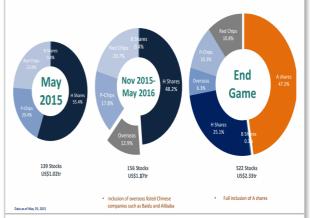


1. MSCI, 상해 A지수 편입 로드맵 업데이트



- 상해 A지수 5% 편입 시, 전체 EM에서 중국비중은 4.7% 확대 (25.3%→30.0%)
- 상해 A지수 5% 편입 시, 한국비중 0.9% 축소 전망 (14.6% → 13.7%)
- 6월 현재 MSCI EM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는 총 \$1.5조 수준임을 감안하면 상해A 지수의 EM 5%편입 시, 한국비중 축소 금액은 14조원 수준 (\$1.5조*0.9%)
- 이번 상해A 편입 보류 결정은 단기 투자심리 개선요인이나, 중장기적인 수급부담은 지난 2014년 로드맵 보다 훨씬 커진 상황 (2014년 로드맵 한국비중 0.2% 축소 전망)

2. 연내, 해외상장 중국주식 편입은 예정대로 진행



- 15년 11월 ~ 16년 5월까지, 해외상장 중국주식은 예정대로 MSCI EM 지수에 편 Ω 예정
- 알리비바 바이두 등 총 17개 종목이 연내 신규편입 될 전망이며, 이들이 MSQ EM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%(\$1,500억) 수준으로 전망
- 한국증시 비중축소 요인으로서 수급악재임에 분명하지만 이미 사전에 알려져있 었던 이슈임 현 가격에 일정부분 기반영되어 있어, 증시 충격은 제한적일 것

3. 상해A, 5%편입 시, 종목별 비중 변동



- 상해A 상장 주식들과 해외 상장주식들의 연내 편입으로, MSCI CHINA의 상위 종 목은 지수 내 비중축소 불가피
- 다만 지수조정 시작이 올 11월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(해외상장 중국주식 편입 기준), 해당 종목들의 비중조정은 점진적이고 완만하게 진행될 전망

4.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?

- MSCI, 상해A의 EM지수 편입 보류 결정
- Quota allocation process(투자한도), capital mobility restrictions(자본이동제한) and darification on beneficial ownership of investments (실질소유주 문제) 가 핵심원인
- 한국증시 영향: 단기 투자심리 개선요인이나, 중장기적인 수급부담은 여전
- MSCI, 상해A의 EM지수 편입 로드맵 업데이트
- 상해 A지수 5% 편입 시, 한국비중 0.9% 축소 전망 (14.6% → 13.7%). 현실화될 경
 우, 한국비중 축소 금액은 14조원 수준 (\$1.5조*0.9%)으로 추정
- 해외상장 중국주식 편입은 예정대로 진행 (15년 11월 ~ 16년 5월)
- 한국증시 비중축소 요인으로서 수급악재임에 분명하나, 현 가격에 일정부분 기반 영 단기충격은 제한적일 전망

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해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.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,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,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 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,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, 복제, 인용, 변형 할 수 없습니다